

# 부가어 대응규칙으로서의 ‘-어 있-’과 ‘-고 있-’

양 정 석

연세대학교

jsyang@dragon.yonsei.ac.kr

## 1. 문제 제기

- (1) 비가 오고 있다.
- (2) 아이가 장난감을 들고 있다.
- (3) 손님이 와 있다.
- (4) 가. (2)와 (3)의 ‘-고 있-’과 ‘-어 있-’은 상보적으로 분포하는가?  
나. 결과 상태 지속의 ‘-고 있-’은 재귀동사와만 공존하는가?  
다. ‘-고 있-’ 구문과 ‘-어 있-’ 구문의 통사구조?  
라. ‘-고 있-’ 구문과 ‘-어 있-’ 구문의 통사-의미 대응?

### 2.1. ‘-고 있-’과 ‘-어 있-’은 상보적으로 분포하는가?

- (5) 가. 철수가 모자를 들고 있다.  
나. 철수가 무릎에 손을 얹고 있다.  
다. 철수는 명찰을 달고/붙이고 있다.  
라. 철수는 명찰을 떼고 있다.
- (6) 가. 그는 책상에 화분을 놓고 있다.  
나. 그는 서랍에 시계를 놓고 있다.
- (7) 가. 철수가 죽을 먹고 있다.  
나. 철수가 공을 차고 있다.
- (8) 가. 그는 자기 책상에 화분을 놓고 있다.  
나. 그는 자기 서랍에 시계를 놓고 있다.
- (9) 가. ?그는 길가에 책을 놓고 있다.  
나. ?철수는 공터에 가방을 놓고 있다.
- (10) 가. 그가 벽에 기대고 있다.  
나. 그가 벽에 기대어 있다.
- (11) 가. 그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나. 그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져 있다.

- (12) 가. 이 회사의 체인망은 5개국에 걸쳐고 있다.  
나. 그 나라는 3개 주에 걸쳐 있다.
- (13) 가. 그 사람 지금 동경에 머무르고 있다.  
나. 그 사람 지금 동경에 머물러 있다.
- (14) 가. 차가 정지하고 있다.  
나. 차가 정지해 있다.
- (15) 가. 김씨는 차에 타고 있다.  
나. 김씨는 차에 타 있다.

## 2.2. 결과 상태 지속의 ‘-고 있-’은 체귀동사와만 공존하는가?

- (16) 가. 그가 흰옷을 입고 있다.  
나. 김씨는 차에 타고 있다.
- (17) 가. 그는 동경에 머무르고 있다.  
나. 김씨는 차를 회사 주차장에 두고 있다.
- (16)' 가. 그가 5분 만에 옷을 입었다.  
나. 김씨는 30초 만에 차에 탔다.
- (17)' 가. ?\*그는 한 달 만에 동경에 머물렀다.  
나. ?\*김씨는 10분 만에/한 시간 만에 차를 주차장에 두었다.
- (18) 가. 철수는 그를 믿고 있다.  
나. 철수는 그를 생각하고 있다.  
다. 철수는 그를 좋아하고 있다.

## 3. ‘-고 있-’ 구문과 ‘-어 있-’ 구문의 통사구조

- (19) 가. 철수는 학교에 가고 있다.  
나. 철수는 학교에 가 있다.
- (20) 가. 철수는 학교에 안 가고 있다. [ ≠ 학교에 가고 있지 않다.]  
나. 철수는 학교에 안 가 있다. [ = 학교에 가 있지 않다.]
- (20)' 가. 철수는 학교에 안 가고 집에 있다.
- (21) 가. ?\*아무도 자리에 앉고 있지 않다.  
나. 아무도 자리에 앉지 않고 있다.
- (22) 가. 아무도 자리에 앉아 있지 않다.  
나. \*아무도 자리에 앉지 않아 있다.
- (23) 가. 그분이 가시고 있다.  
나. \*그분이 가서 있다.
- (24) 가. ‘-시-’가 굴절소(I) 범주를 이루나, 일치소(AGR)와 같은 적극적인 기

능을 포함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주격의 할당은 I 범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논항 연결 원리’와 이에 종속되는 ‘격 표시 원리’의 적용에 따라 이루어진다.

나. ‘논항 연결 원리’는 동사의 어휘의미구조에서 해당 논항이 취하는 위치를 참조하여, 통사구조에서 IP의 명시어인 주어, VP의 명시어인 목적어가 연결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 외의 논항은 VP의 보충어 위치로 연결된다.

다. ‘격 표시 원리’는 논항 연결 원리에 의해 주어진 통사구조의 동지표(의미구조 성분과의 대응을 표시하는 동지표)에 주격(IP의 명시어), 목적격(VP의 명시어), 사격(VP의 보충어)이 표시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추상격으로만 표시될 뿐, 격 표지로 실현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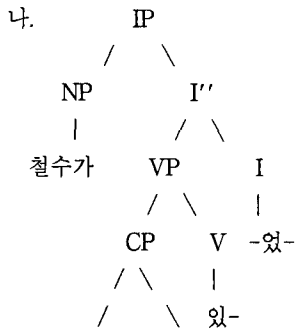
라. ‘-이/가’와 ‘-을/를’은 ‘-는/도/만’ 등과 같이 보조사 범주를 이룬다. 이들 보조사는 물론 이른바 ‘부사격 조사’도 실현되지 않은 명사항은 무형의 형태소 보조사인 ‘∅’가 실현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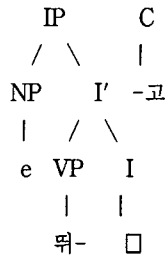
마. 연결어미는 독립된 통사 범주 C를, 보조사는 독립된 통사 범주 D를 가진다. 연결어미와 보조사의 결합은 어휘부 내의 대응규칙(어휘부 대응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결어미의 범주인 C를 부여받는다.  
 [C] [D] ==> [C] [D]

바. 국어에서 보문소 C는 언제나 실현되어야 한다. 굴절소 I도 언제나 실현되어야 한다. 굴절소들이 둘 이상 연이어 실현되는 경우는 어휘부 내의 대응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복합 굴절소로 실현된 것이며, 표면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는 무형의 형태소인 굴절소 범주 ‘∅’가 실현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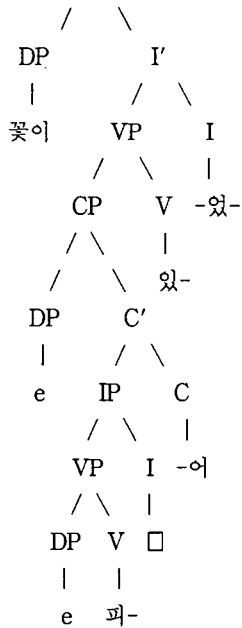
[I] [I] ==> [ [I] [I] ]

(25) 가. 철수가 뛰고 있었다.





- (26) 가. \*그 분이 그곳으로 가시어 있다.  
 나. 그 분이 그곳으로 가시고 있다.
- (27) 가. 꽃이 안 피어 있다.  
 나. 그가 안 가고 있다.
- (28) 가. 그곳에 가시어 잘 살펴보시도록 말씀드려라.  
 나. \*가서 보세요.
- (29) 가. 꽃이 피어 있었다.  
 나. IP



4. '-고 있-' 구문의 통사-의미 대응과 추론 규칙의 기능

(30) '-고 있-' 부가어 대응규칙:

IP가 β에 대응되면, 통사구조 [vp[CP IPk 고 있h]는 다음에 대응된다

[ -b ]  
 | BE<sub>Circ</sub>([ ]<sub>A</sub>, [IN([Event ]<sup>β</sup>k)]) |  
 | [WITH([ β ]) ] h

(32) cf. [BE<sub>Circ</sub> ([X]<sup>a</sup>, [Place AT [Event/State F ([a], . . . )]])]

(31) [c [c 고/어]<sub>i</sub> D<sub>j</sub>]는 다음 의미구조에 대응된다.

[ X<sub>j</sub> ]  
 | [WITH/BY([ ])<sub>i</sub>] |

①'진행'의 해석

②'반복화'의 해석

(32) 반복화 규칙:

[Event X ] ==> [ -b, +i ]  
 | PL([Event X ]) |

cf. 김씨가 망치로 달구어진 쇠를 치고 있다.

③'재료화' 해석

(33) □ -b, -i □  
 | GR(□ +b, -i □) |  
 □<sub>Thing</sub> □<sub>Thing</sub> X □ □

(34) 한계성 사건의 재료화:

[ +b ] ==> [ -b, -i ]  
 | Event X ] | GR([Event X ]) |

cf. (34)'가. 집 한 채를 짓고 있다.

나. 철수가 학교에 가고 있다.

④'이상화된 진행'의 해석

(35) 기차가 도착하고 있다.

⑤'결과 상태 지속' 해석

(36)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있다.

(37) 가. 그가 모자를 쓰고 있다.

나. 그는 명찰을 떼고 있다.

(38) 가. ?그는 발에 책을 놓고 있다.

나. 그는 자기 책장에 화분을 놓고 있다.

(39) 가. \*방이 깨끗하고 있다. : 상태성

나. 철수가 수레를 밀고 있다. : 동작성

다. 아이가 자고 있다. : 동작성

- 라. 김씨가 집을 짓고 있다. : 완성성  
 마. 그가 총을 쏘고 있다. : 성취성  
 바. 그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 성취성  
 (39)' 가. \*방이 하루 동안 깨끗하다. : 상태성  
 나. 철수가 한 시간 동안 수레를 밀었다. : 동작성  
 다. 아이가 한 시간 동안 잤다. : 동작성  
 라. 김씨가 한 시간 동안 집을 지었다. : 완성성  
 마. 그가 한 시간 동안 총을 쏘았다. : 성취성  
 바. 그는 10년 동안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 성취성  
 (40) 나는 10년 동안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 5. '-어 있-'의 처리

### 5.1. '-어 있-' 구문의 자동사 조건과 한계성 조건

- (41) 가. 선행 동사가 자동사일 것.  
 나. 선행 동사(또는 동사구)가 한계성의 의미 자질을 가질 것  
 (42) 가. 김씨가 이씨를 쳤다.  
 나. 어머니가 선반에 꿀단지를 놓았다.  
 다. 철수가 상처를 손으로 눌렀다.  
 (42)' 가. \*김씨가 이씨를 쳐 있다.  
 나. \*어머니가 선반에 꿀단지를 놓아 있다.  
 다. \*철수가 상처를 손으로 눌러 있다.  
 (43) 가. 그가 걸었다.  
 나. 그가 들길로 걸었다.  
 (43)' 가. \*그가 걸어 있다.  
 나. \*그가 들길로 걸어 있다.  
 (44) 가. 강물이 흘렀다.  
 나. 강물이 들판으로 흘렀다.  
 (44)' 가. \*강물이 흘러 있다.  
 나. \*강물이 들판으로 흘러 있다.  
 (45) 그가 들길을 걸었다.  
 (45)' \*그가 들길을 걸어 있다.  
 (46) 강물이 들판을 흘렀다.  
 (46)' \*강물이 들판을 흘러 있다.

- (47) 그 때 걱정이는 자기 집을 가 있었다.
- (48) 가. 상류의 오염된 강물이 하류로 흘렀다.  
 나. 상류의 오염된 강물이 한 시간 만에 하류로 흘렀다.  
 다. 상류의 오염된 강물이 하류로 흘러 있었다.
- (49) 가. 부대가 청송으로 움직였다.  
 나. 부대가 한 시간 만에 청송으로 움직였다.  
 다. 부대가 청송으로 움직여 있었다.
- (50) 가.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으로 뛰었다.  
 나. 환율이 하루 만에 1달러당 2000원으로 뛰었다.  
 다. 환율이 밤 사이에 1달러당 2000원으로 뛰어 있었다.
- (51) 가. 강물이 200km를 흘렀다.  
 나. 강물이 200km를 흘러 있었다.

## 5.2. ‘-어 있-’ 구문의 통사-의미 대응

(47) 걱정이는 그 때 자기 집을 가 있었다.

(48) ‘-어 있-’ 대응규칙(어휘부 대응규칙):

[<sub>v</sub> V<sub>h</sub> 어 있 ]은 다음에 대응된다.

$$\left[ \begin{array}{l} +b \\ | \text{BE}_{\text{Circ}}([\ ] , [\text{AT-END-OF}([\text{Event} \text{ -피작용성 } ]_h^a)]) | \\ | [\text{BY}([\ a \ ])] | \end{array} \right]$$

(49) 재구조화 원리:

어휘부 대응규칙에 의해 단일한 통사 범주를 부여받은 [X Y] 또는 [X]에 따라 통사구조에서 통사구조에서 ‘XaY’ 또는 ‘Xa’는 연속적/불연속적 형식으로 복합적 머리성분을 이룰 수 있다.

i) 통사구조에서 ‘X a Y’를 이루는 X, a, Y, 그리고 이들의 최대 투사 XP, aP, YP에는 모두 위첨자 지표 ‘i’로 표시된다. 이들 중간의 머리성분과 최대 투사에도 ‘i’가 표시된다.

ii) 위첨자 지표로 연계된 머리성분 요소들은 하나의 복합 머리성분을 이루며, 통사구조의 적격한 구성성분으로 허가된다.

iii) 위첨자 지표 ‘i’로 표시된 영역 내의 최대 투사 범주는 장벽으로서의 성질을 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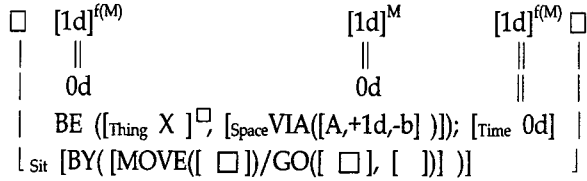
iv) 복합 머리성분 ‘XaY’ 또는 ‘Xa’의 의미는 [X Y] 또는 [X]의 의미 [A]와 ‘a’의 의미 [B]를 결합한 형식 [[A], [B]]를 가진다.

v) 의미구조와의 대응을 나타내는 통사구조상의 동지표는, 어휘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복합 머리성분 내의 최상위 머리성분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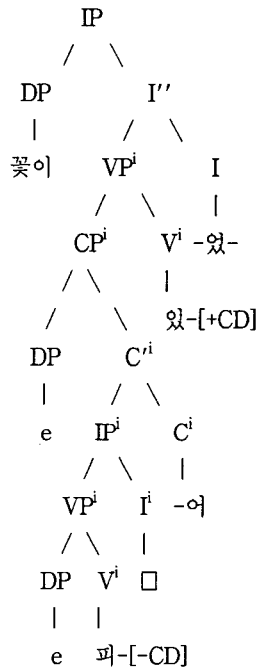
에 표시된다.

(50) 경유지 목적어 대응규칙:

[<sub>v</sub> DP [<sub>v</sub> V ]]는 다음 의미구조에 대응된다.



(51)



## 6. 마무리

--'고 있-'과 '-어 있-'을 각기 독립된 부가어 대응규칙으로 기술하였다.

--'고 있-' 구문은 '있-'과 선행하는 보문이 부가어 대응규칙의 제약을 받는 형식으로 그 통사·의미론적 대응이 포착되었다. 'NP 동안 부가어 규칙'과 의미적 효과가 공통된다는 것을 역시 규칙의 형식을 통하여 드러내었다.

--'어 있-'의 경우, '한계성 조건'은 물론 '자동사 조건'도 의미론적 조건으로 해석되어 부가어 대응규칙의 기술에 반영되었다. 특히 한계성 조건을 매개로 다른 구문 규칙인 '경유지 목적어 부가어 규칙'과 상호작용하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규칙으로 포착하였다.



--'고 있-'과 '-어 있-'이 각기 독립된 부가어 대응규칙으로 기술되었지만, 그 통사적 성격에는 차이가 있다. '-어 있-' 부가어 대응규칙은 어휘부 대응규칙으로 설정되고, 이에 따라 통사구조의 재구조화가 유발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 있-' 부가어 대응규칙은 어휘부에 단어 단위로 설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구조화가 개재되지 않는다.

--순수한 통사적 해석 절차로서의 재구조화는 둘 이상의 머리성분이 어휘부에서 한 단위로 결합되어 주어절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작동되는 것이다. 의미구조의 형성 과정에도 이러한 재구조화가 부분적으로 기여한다.

--이들 구문에서는 통사구조의 허가에 관한 문제와 아울러 그 의미 실현에 관한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데, 둘 이상의 부가어 대응규칙들이 적용되면서 부분적 의미구조를 전승하는 과정을 관찰하였다.

## 참고문헌

- 김성화(1992). 국어의 상 연구. 한신문화사.
- 김윤신(2004). 한국어 동사의 사건구조와 사건함수 '-고 있다'의 기능, 형태론 6-1.
- 박양규(1985). 국어의 재귀동사에 대하여, 국어학 14.
- 서정수(1976). 국어 시상형태의 의미 분석 연구, 문법연구 3.
- 양정석(1992). 한국어 동사의 어휘구조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
- 양정석(1995/1997). 국어 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이론. 박이정.
- 양정석(2001). '이다'의 문법범주와 의미, 국어학 37집. 국어학회.
- 양정석(2002). 시상성과 논항 연결. 태학사.
- 이기동(1978). 조동사 '있다'의 의미 연구, 눈피허웅박사환갑기념논문집.
- 임홍빈(1975). 부정법 {어}와 상태진술의 {고}, 국민대학논문집 8.
- 장석진(1973). 시상의 양상, 어학연구 9-2.
- 정문수(1984). 상적 특성에 따른 한국어 풀이씨의 분류, 문법연구 5.
- 최현숙(1988). Restructuring Parameters and Complex Predicates. doctoral dissertation, MIT.
- 한동완(2000). '-어 있-' 구성의 결합제약에 대하여, 형태론 2-2.
- Jackendoff, R.(1990). Semantic Structures. MIT.
- Jackendoff, R.(1991). Parts and boundaries, Cognition 41.

- Jackendoff, R.(1996). The proper treatment of measuring out, telicity and perhaps even quantification in English,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4.
- Jackendoff, R.(1997). *The Architecture of the Language Faculty*. MIT.
- Jackendoff, R.(2002). *Foundations of Language*. Oxford Univ. Press.
- Smith, C.(1991). *The Parameter of Aspect*. Kluwer Academic.